

'고도를 기다리며' 기획전시

부안청자박물관, 내년 4월 2일까지 안미정 도예가 초청전 개최

부안군은 내년 4월 2일까지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박물관에서는 수 년 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발굴하여 초청전시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안미정 도예가의 30여점의 작품을 초청하여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시 주제는 '부안 안미정 도예가 초청전, 고도를 기다리며'이며, 도자기로 정사각 형태의 큐브를 여러 개 만들어 다양하게 조립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인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부조리극으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상징적으로 그린 2막의 희비극으로, 안미정 도예가는 이 희비극에 착안하여 현대사회의 차갑고 각박한 개인화 경향과 온갖 재해, 계층 간 갈등과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도자기로 작품화했다.

안미정 도예가는 현대사회의 차갑고 각박한 개인화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 정사각 형태의 큐브에 작은 구멍만을 뚫었으며, 중간 중간의 켜기는 삶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이혼, 실직, 질병, 죽음, 테러, 자연 재해 등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행등과 이웃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감상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위태로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각종 바이너스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부안군은 내년 4월 2일까지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국선 특선작품-흔들리지 않고)

이웃 간, 계층 간, 이종 간 갈등은 만연하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약자를 짓밟아야 하는 욕망의 노예들,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

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다. 작고 좁지만 어디가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사다리나 계단은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빈 의자 역시 희망의 표현이다. 외롭게 놓인 작은 의자는 막연한 기다림이며, 본 작품의 마지막 시선이 멈추는 사유의 공간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생각이나 관습까지도 미의 개념에 포함시켜 왔다.

예술은 그 시대의 심층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나 정신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작품으로 표현될 때는 현실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의미를 가진다. 더 많은 예술작품에 다양한 삶을 담아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미정 도예가는 "고도를 기다리며 시리즈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현실을 바로보게 하고, 각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타심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부안의 훌륭한 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작품세계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어 뜻깊으며, 군민과 관람객의 무더위를 식혀줄 아름답고 시원한 도자예술의 향연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 극복과 치유' 주얼리 작품 전시회

익산보석박물관서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초대전 - Get over' 진행

익산시가 수준 높은 주얼리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지를 담은 기획 전시를 마련했다.

시는 국내 대표 주얼리 화원작가 52명이 참여한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초대전 - Get over'을 익산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시대 현대인의 극복과 치유를 담은 'Get over'란 주제로 화려하고 섬세한 주얼리 작품을 매개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보석박물관 초대전의 초청 대상인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는 1993년 창립으로 국내의 귀금속 산업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작가들과 전공 관련학과 지도자 및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애란 협회장은 "보석도시 익산에서 코로나 극복과 치유의 주제로 전시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및 제품 개발과 국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귀금속보석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경원 보석박물관장은 "'극복', '회복', '이겨내다'라는 키워드로 만든 작품을 통해 박물관에 찾아오신 관람객들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보석 같은 힐링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와 함께하는 두 번째 초대전인 만큼 더욱 발전된 예술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전시기획계(063-853-4772)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장미갤러리, 함미정 개인전 '포근한 휴일,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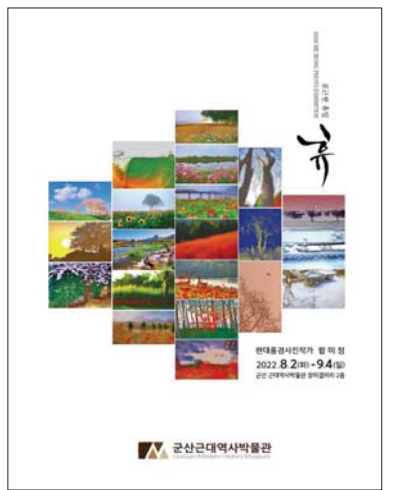
9월 4일까지 풍경사진 30여점 전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현대 사진작가 함미정 개인전 '포근한 휴일, 휴'를 오는 9월 4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의 미가 담긴 주옥같은 풍경사진 30여점을 계절별로 프레임에 담아 전시함으로써 렌즈를 통해 새로운 휴일날의 온도를 공유하고 프레임 속 풍경 사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고자 기획했다.

함미정 작가는 현대풍경 사진작가로 대한민국 사진대전과 전라북도 사진대전에서 수차례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전북예술회관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아름다운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진 작품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휴일날의 서정', '색들이 출른다', '그리움 속에 삶', '눈속에서 빛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사계절의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3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문제해결 위한 문화적 실험 공모사업 추진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2가지 사업 5일까지 접수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설정환)가 지역사회의 의제와 문제를 문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2사업으로 구분된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우리동네 우리문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문제를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문화공유공간 실험실'은 고창군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문화 공유공간 조성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고창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 주제별 선정된 팀에게는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우리동네 우리문제'에 팀별 250만원의 지원금이, '문화공유공간 실험실'에는 각 팀별로 20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 선정된 팀은 문화실험 실무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및 정책 세미나, 권역별 성과공유회 주민발표 토론 등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실험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고창군청,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치유사업팀(070-4175-6673)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5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공모에 총 3965편 출품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조직·집행위원회는 '제5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출품작' 공모에 3965편이 최종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부분별로 보면 국제경쟁 부문 3215편, 국내경

쟁 부문 한국단편 722편, 전북지역 경쟁 부문 28편으로 집계됐다.

조직위는 접수된 작품들을 1, 2차로 나눠 심사한 뒤 총 40편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본

선작 발표는 오는 9월 초 전주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주최하고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조직·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화예술 증진 공공사업 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과 3일 전담 연합회에서 기관 상호 간 발전과 도내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전담 서현석 대표와 전북지원단 박신애 단장 및 14개 시·군 회장단 등이 참석해 기관 간 공공사업 연계 및 홍보마케팅, 관련 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 사업 연계 상호 홍보마케팅 시너지 극대화 공동 노력 △양 기관 운영 관련 상호 자문 및 지원 △양 기관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해 상호 필요한 벤치마킹 협조 △기타 상호 우호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